

해외의약뉴스

제네릭 의약품이 유방암 환자의 치료 지속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
개요

여성 유방암 환자가 호르몬 치료법을 지속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는 비용이라고 연구자는 말한다.

키워드

Generic Drugs, Breast cancer, aromatase, hormone receptor-positive

제네릭 호르몬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유방암 환자가 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킨다고 새로운 연구에서 밝혀졌다.

"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여성에 있어서 호르몬 치료는 거의 50%까지 재발을 줄일 수 있다."고 뉴욕 시의 콜롬비아대학교병원에서 역학 조교수인 연구 책임자 Dawn Hershman 박사가 병원의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.

"하지만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상당수가 권장 기한인 5년 전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처방 된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"고 그녀는 덧붙였다.

"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잠재적인 생명 연장 요법을 위해 치료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 이것은 비싼 구강암 치료의 급속한 증가 고려 시 특히 중요하다."고 컬럼비아 대학 내.외과 의학 부교수 Hershman가 설명하였다.

이 연구는 5,500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였다. 모든 여성은 50세 이상 이었다. 그리고 모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초기 유방암 환자였다. 이는 미국 암협회(ACS)에 의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반응하는 암을 의미한다.

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모두 유방암 제거 수술을 받았다. 수술 후 그들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일반적인 치료법인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처방받았다.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에스트로겐의 합성을 억제한다. ACS에 따르면,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에게 이러한 약물은 체내 에스트로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.

호르몬 치료가 이런 유방암 환자의 재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약을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는다고 연구진들은 말했다.

이 연구의 환자들은 2년간 추적 조사되었다. 연구진은 제네릭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더 비싼 오리지널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한 사람보다 약물 치료를 지속할 가능성이 50%이상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.

"이러한 발견은 심지어 10년까지 더 장기간의 치료가 이로울 수 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기에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. 환자들이 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지,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"라고 뉴욕-장로교회/콜롬비아 대학 메디컬센터의 Herbert Irving 종합 암센터의 유방암 프로그램의 책임자 Hershman이 결론을 지었다.

여러 가지 요인이 유방암 환자의 약물요법 지속 중단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의 저자들은 제안했었다.

"비용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. 그러나 부작용 같이 다른 요인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.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한 여성의 거의 40% 정도가 관절 경직을 경험하였습니다. 만약 거기에 높은 비용까지 더해진다면, 그것은 종종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."라고 Hershman은 보도 자료에서 발표하였다.

이 연구는 국립 암 연구소 저널에 10월 27일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.

■ 원문정보 ■

http://www.nlm.nih.gov/medlineplus/news/fullstory_149231.html